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이스트스프링 아시아 퍼시픽 고배당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023년 04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아시아 퍼시픽 고배당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설립, 상장되거나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주식 및 주식연계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특히, 비교적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수익과 함께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astSpring Investments-Asian Equity Income Fund)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4억 원

-모투자신탁 4억 원

펀드유형 주식-재간접형, 모자형, 종류형
 - 모투자신탁 편입비: 90% 이상
 -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편입비: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13년 07월 05일)

- 클래스 A : 2013년 07월 05일
- 클래스 A-E : 2014년 06월 12일
- 클래스 C-E : 2013년 07월 08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17년 11월 06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4년 09월 15일
- 클래스 C4 : 2018년 05월 03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3일
- 클래스 S-P : 2017년 09월 25일

벤치마크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Index(USD)
95% + Call Loan 5%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월 중 환헤지 비중 92.4%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9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10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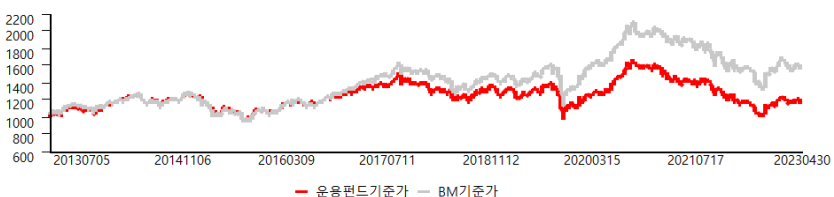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2.09%	-5.72%	16.78%	-5.66%	-27.44%	2.75%	-15.12%	15.86%
클래스 A	-2.19%	-5.99%	16.12%	-6.79%	-29.17%	-0.83%	-20.03%	3.19%
클래스 A-E	-2.15%	-5.90%	16.35%	-6.41%	-28.58%	0.35%	-18.48%	-9.40%
클래스 C-E	-2.17%	-5.95%	16.24%	-6.60%	-28.87%	-0.23%	-19.21%	5.19%
클래스 C-P(퇴직연금)E	-2.16%	-5.92%	16.31%	-6.47%	-28.68%	0.16%	-18.72%	-19.48%
클래스 C-P2(연금저축)	-2.18%	-5.98%	16.15%	-6.75%	-29.10%	-0.69%	-19.87%	-14.68%
클래스 S	-2.09%	-5.72%	16.78%	-5.67%	-27.45%	2.74%	-	-9.38%
클래스 S4	-2.14%	-5.87%	16.43%	-6.27%	-28.36%	0.96%	-17.80%	-5.24%
클래스 S-P	-2.15%	-5.88%	16.40%	-6.31%	-28.43%	0.69%	-17.97%	-16.88%
벤치마크	-1.49%	-7.01%	18.53%	-3.38%	-22.40%	17.20%	3.71%	5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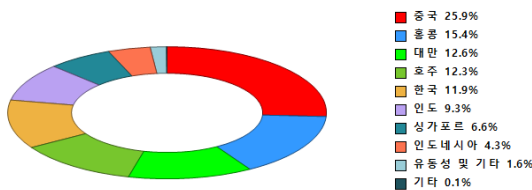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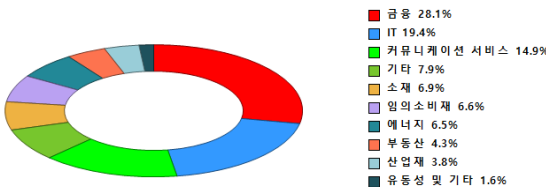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3년 04월말, 피투자펀드 기준)

<국가별 비중>



<자산배분 현황>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3년 04월말, 피투자펀드 기준)

종목명	비중(%)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8.5
SAMSUNG ELECTRONICS CO LTD	6.1
TENCENT HOLDINGS LTD	5.0
BHP GROUP LTD	3.6
CHINA CONSTRUCTION BANK CORP	3.2
AIA GROUP LTD	3.0
PING AN INSURANCE GROUP CO OF CHINA LTD H-SHARES	2.8
HKT TRUST AND HKT LTD	2.5
BANK NEGARA INDONESIA PERSERO TBK PT	2.5
MACQUARIE GROUP LTD	2.5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175% (판매 0.7%)
- 클래스 A-E : 총 연 0.825% (판매 0.35%)
- 클래스 C-E : 총 연 0.975% (판매 0.5%)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1.275% (판매 0.8%)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0.875% (판매 0.4%)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175% (판매 0.7%)
- 클래스 C4 : 총 연 1.275% (판매 0.8%)
- 클래스 S : 총 연 0.725% (판매 0.25%)
- 클래스 S-P : 총 연 0.675% (판매 0.2%)

(공통사항)

운용 0.425%, 신탁 0.035%,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A-E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C/C-E/C-P2(연금저축)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4월 아시아퍼시픽 시장은 펀드의 비교지수인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equity index USD 기준으로 1.8% 하락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중국 증시는 3월 말에 정치 이벤트인 양회기 마무리된 이후 높았던 정책 기대감이 되돌리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4월 제조업 PMI지수는 수요가 둔화되고 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전월 51.9에서 하락한 49.2를 기록하여 경기확장선인 50선을 하회하였고, 대만의 4월 PMI 또한 전월 48.6에서 하락한 47.1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세안 증시는 아시아 및 이머징 대비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증시는 견고한 내수 소비와 정부의 정책개혁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상승하였고, 필리핀에서는 CPI가 3월 대비 100bps 하락한 7.6%를 기록하면서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도 증시는 대형주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기술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하였습니다. 호주 증시는 보합 마감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의 지속으로 미 연준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갈등이 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단기적으로 증시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내수의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2분기부터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수혜가 기대됩니다. 또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국면에서의 아시아 배당주는 방어적이고 매력적인 투자라고 판단됩니다.

펀드매니저는 개별 주식 단계에서 성장성, 유동성, 배당 성장률, 배당 지속성을 모두 고려하는 투자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시아 증시에서 높은 배당수익률을 지닌 매력적인 종목에 투자할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